

양모 가공사 세척에서 얻어지는 양모유 (wool grease)

메리노 울의 원모는 라놀린(lanolin) 등의 지방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의 울을 지방이 함유된 울(grease wool)이라고 한다. 이러한 grease wool울은 입고 있을 때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혐오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지방질을 제거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하기 쉽게 하기도 하고 무색무취로 가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모사를 정련, 표백하여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편성하여 스웨터라든가 카디건 등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울로 만든 옷은 원모가 가지고 있던 라놀린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제거된 라놀린은 자연 양털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며,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민감한 사람의 피부에 보습, 보호, 유연 작용을 돕는다. 라놀린 크림에 함께 이용되는 용해성 콜라겐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피부에 특히 효과적이며, 피부의 재생과 환경의 영향, 즉 햇빛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또한 양모유(wool grease)는 양모 가공사 세척에서 얻어지는 기름으로 고급 알코올 에스테르가 주성분으로 예로부터 피혁용 가지제(fatliquor,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오일)로 사용되어 왔으며, 유연성과 매끄러운 감촉이 훌륭하여 표면 감촉을 좋게 하는 가지제로 호평 받고 있다.

오늘날에도 의류용 양피는 물론이고, 신발용 가죽의 표면처리 가지제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냥꾼이 입는 스웨터라든가 바지, 어부들이 입는 피셔맨 스웨터에는 라놀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라놀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물 방울을 튕겨내고 젖지 않게 하기 때문에 폭풍이나 습지를 만날 때라든가 눈속에서는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준다고 한다.